Entertainment p/16

카라 日골든디스크 3관왕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9일 수요일 제2645호

Sports p/21

메시 발롱도르 첫 4연패

소셜커머스 빅4 짝퉁 걸렸다

NEWS p/02

1인실 입원료 최대 6배 차이

NEWS p/03

'소시' 메신저 폭풍수다 팀워크

ENTERTAINMENT p/14

유동입게 섹시한 뱀의 유혹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9일 수요일

정대세 "첫해 15골 넣겠다"

<연간매출>

갤럭시 파워! '200조 시대' 활짝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이익 30조 육박 사상최대 서프라이즈 행진에 "주가 210만원 간다" 전망도

오늘(9일)은 삼성그룹의 잔칫날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장단(부사장 이상) 부부 300명가량과 신년 사장단 만찬 행사를 갖는다. 이 회장의 생일이기도 해 사장단 신년 만찬을 겸해 72세 축하연도 갖는다. 잔칫상에 앞서 8일 삼성은 큰 선물을 받았다.

그룹의 맏형인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에 또다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잠정)을 발표한 것이다. 3분기 연속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고, 덕분에 매출액은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 연간 매출액 201조500억원, 영업이익 29조100억원을 기록했다.

놀라운 성적에 증권가도 들썩였다. 물론 8일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지수가 2000선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전날 대비 1.32% 내린 150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고 21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단기 조정 후에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29곳의 삼성전자 목표 가격은 8일 현재 평균 184만5000원. 키움증권은 210만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 대신증권과 동양증권의 목표 주가도 200만원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것이다.

키움증권 김성인 상무는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단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우상향으로 갈 것"이라며 "지난해까지는 정보통신이 이끌었는데 올해부터는 반도체가 실적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도 공격적인 마케팅 포지션을 유지하겠다고 확답했다.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소비자가전 부문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각국 취재진 1500여 명을 앞에 놓고 "올해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제공해 소비자가 새로운 기능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ES 무대의 주인공 삼성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이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2013 개막에 앞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목표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것뿐 아니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한것까지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는 "TV를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 제공은 물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TV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던 쌍두마차인 휴대전화와 반도체가 올해도 승승장구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4분기 매출 56조·영업이익 8조 8000억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6000만~6100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여기서만 5조6000억~5조 70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

반도체 부문 실적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대신증권 강정원 연구원은 "반도체 부문에서 자사 스마트폰 판매 강세와 신규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출시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를 바탕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연구원은 "갤럭시S4의 출시에 따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실적이 동시에 개선될 여지가 크고, 메모리 반도체도 가격 안정으로 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기자 lizyhan@metroseoul.co.kr

믿었던 디지털도어록 '드릴'에 뚫렸다

3mm 구멍낸 후 철사로 문열림 버튼 눌러 30여차례 2억 훔쳤어도 집주인은 깜깜

보안에 철저하다는 디지털 현관 잠금장치(도어록)도 전동드릴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상습 침입해 2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임모(4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동드릴을 이용해 아파트 디지털 도어록을 뚫는 수법으로 모두 33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인테리어 업자로 약 15년간 새시 시공과 인테리어 일을 해 온 임씨는 2년 전부터 일거리가 없자 자신이 일했던 아파트 단지를 돌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서울과 부산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돌며 초인종을 일일이 누른 후 인기척이 없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아파트 침입을 위해 전동드릴을 동원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임씨는 전동드릴로 천천히 디지털 도어록 옆을 뚫은 뒤 3~5㎜의 작은 구멍이 생기면 휘어진 철사를 집어넣어 문열림 버튼을 눌러 현관문을 열었다.

임씨는 절도 행각을 숨기기 위해 금품을 훔치는 것 외에는 다른 물건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범행 후에는 뚫린 구멍을 실리콘으로 메우고 문 색깔과 같은 스티커를 붙일 정도로 치밀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도둑이 침입했는지 몰랐다" "경찰이 온 뒤에야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황재용기자 unique@

서울시 '블랙아웃 막기' 앞장

"민원방문·전화 오전 11시~정오 피하세요"

앞으로 한 달간 서울시청과 각 자치구청을 방문할 때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의 시간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동절기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해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점심시간을 오전 11~12시로 1시간 앞당긴다고 밝혔다.

시와 구의 전 직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점심시간 변경을 통해 피크시간대 1만6000kW의 전력 절약 효과가 예상된다.

이 시간대에는 컴퓨터와 사무기기, 조명 등의 전원을 끄고 점심식사를 하게 된다.

이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고육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전력량 1만6000kWh는 형광등 60만 개를 1시간 동안 켰을 때 소모되는 양이다.

임옥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민원인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며 대기전력을 최대한 차단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동호기자 eleven@

점심시간 1시간 앞당겨 8일 서울시청 구내식당에 중식시간 조정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뉴시스

'짝퉁 커머스' 또 들통

"일본 장인이 2년 걸려 만든 명품" 거짓광고…티몬·쿠팡 등 빅4 신뢰 추락

'소셜' 커머스가 소설 커머스로 전락하고 있다.

메이저 업체들이 짝퉁을 정품으로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일본 유명 상품의 짝퉁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조치를 하고 과태료 총 2300만원을 부과했다.

4개 소셜커머스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6~7월 일본 유명 상품인 '아루티 모공브러시'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모두 1536개(6747만원어치)를 팔았다.

홈페이지 광고 화면에는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시'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짝퉁인 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짝퉁을 공급한 중간 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사가 각각 500만원, 그루폰이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 1년도 못 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개사는 위조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 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구매액의 110~200%를 환불했다.

공정위 측은 "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고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은기자 zen@metroseoul.co.kr

나로호 이르면 이달말 발사

지난해 발사가 무산된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KSLV-1)가 이르면 이달 내에 다시 발사대에 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나로호 3차 발사관리위원회가 다음주 중 회의를 열고 발사 예정일과 예비 기간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달 안에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발사 예정일인 29일을 일주일 앞두고 발사관리위원회가 열렸다.

지난해 문제를 일으켰던 추력 방향 제어기용 전기 모터 펌프와 전기박스를 새것으로 교체했으며 발사 관련 점검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기온이 영하 10~35도 사이라면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날씨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상단의 관련 시스템에 대한 성능 점검을 마치고 조립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러시아 기술진들이 입국하면 본격적으로 상단과 하단(1단)의 결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이후 발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동호기자

오늘부터 다시 '삼한추위' – 그래도 썰매는 씽씽 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돋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썰매를 타며 겨울을 즐기고 있다. 기상청은 9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1도로 떨어지는 등 사흘동안 다시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인 11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했다. /연합뉴스

이외수 "트위터로 스페셜올림픽 감동 전하겠다" 7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감성마을 문학관에서 열린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이외수 작가 소통위더 홍보대사 위촉식'을 앞두고 나경원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이외수 작가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5억 마지노선 위태

14개월 연속 하락 – 평균 전셋값은 2억7000만원 돌파

새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5억원 선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억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될 경우 부동산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반면 전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셋값은 어전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3억원에 육박했다.

8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2011년 5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14개월 연속 하락한 끝에 평균 5억 78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아파트 가격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9350만원, 한강 이남 11개 구가 6억16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아파트 값은 작년 9월 6억1209만원에서 10월 6억805만원으로 떨어져 6억1000만원대가 붕괴한 이후 11, 12월에도 각각 0.4% 하락했다.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이달 중 5억원대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매매가와 반비례해 작년 12월 2억7043만원으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전세는 2011년 9월 이후 2억6000만원대에 머물렀지만 작년 11월 2억6940만원을 거쳐 2억7000만원대로 올라섰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올라 작년 12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200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54.8%에 달했다.

/김지성기자 azyhand@

비, 가장 약한 '7일 근신'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징계위원회에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인 비가 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9일부터 7일간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근신은 가장 낮은 징계로 일과시간 내에 훈련을 받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는 징계다.

/유순호기자 sune@

중국산 인형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410배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용품 20개 중 1개 꼴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장난감과 학용품 등 6개 제품군 어린이 용품 4000개를 조사한 결과 2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장난감과 인형 1360개 제품 중 17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들이 검출됐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 너구리 인형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일환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410배를 넘었다. /정윤희기자 unique@

등록금 인하 1만6000배 8일 서울 건국대 행정관 앞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 등을 요구하며 절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3주 동안 1만6000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병실료 48만원 vs 8만원

대형 종합병원 간에도 1인실 최대 6배 차이

대형 종합병원 간에도 상급 병실료가 최대 6배까지 차이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4개 상급 종합병원의 6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를 9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과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의 1인실 병실료는 48만원으로 단국대병원(8만원)보다 6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인 병실은 세브란스병원(21만5000원), 고려대구로·강남세브란스(21만원), 강남세브란스(20만원), 서울아산(18만4000원), 삼성서울(13만4000원) 순이었다. 2인실이 가장 저렴한 병원은 인제대부산백병원으로 하루 5만원에 불과했다.

갑상선 초음파 진단 비용은 고려대의대가 20만2000원으로 가장 고가였으며 전북대·조선대병원은 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캡슐내시경 검사비 국산은 경희대병원이 116만5800원, 수입산은 고대안산병원 146만8500원으로 고가였지만 연세대원주기독병원과 인하대병원은 각각 70만4000원, 7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해진단서 수수료는 고대구로병원이 12만원으로 최고였으며 부산대병원 등 32곳에서 5만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 MRI(자기공명영상),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채름소기자

거꾸로 고드름 8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경원선 폐터널에서 사진기가 박대에서 자라는 역고드름을 촬영하기 위해 삼각대를 놓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주·정다빈·최진실 등 유명인 1명 자살

평균 600명 '베르테르 효과'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 600명의 자살에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8일 자살예방협회가 통계청의 자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벌어진 5명의 유명 연예인 자살 이후 각 2개월 사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평균 26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없던 2004년과 2006년의 같은 기간 평균 2025명보다 606명 많은 수치다.

사례별 자살 증가 추이를 보면 2005년 2월 이은주씨가 자살한 직후 일반인 자살 건수가 495명 증가했으며 이어 2007년 1월 유니씨 사건 때는 513명, 같은 해 2월 정다빈씨 사건의 경우 자살 사건이 323명 늘었다. 2008년 9월 안재환씨가 자살한 이후에는 694명의 일반인 자살자가 급증했으며 그 다음달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는 1008명의 자살이 속출했다.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은 "전국 유명 연예인 자살 후 2개월 동안 사회 전체 자살자 수가 평균 600명 정도 늘어난 셈"이라며 "해당 연예인과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자살예방센터 김철권 센터장은 "6일 조성민씨 자살 소식이 터진 이후 부산에서만 하룻밤 사이에 7명이 자살했다"면서 "유명인의 자살은 일반인에게 자살을 '느긋하게' 판단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옥기자

종교인도 근소세 낸다 이달 입법예고 검토

세금 납부에서 자유로웠던 종교인도 앞으로는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 /박성훈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44>

글·그림 박상실

프랑스 작가 보부아르 탄생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1908년 1월 9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21세로 최연소 철학교수 자격을 얻으면서 사르트르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을 익혀 사상과 행동의 기초로 삼아 인생일치의 지성으로 일관했다. 왕성하게 소설과 에세이를 저작했던 그녀는 특히 기념비적인 여성론인 『제2의 성』으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보부아르는 사르트르와 평생 계약결혼 상태로 각자 복잡한 애정 편력을 벌인 관계로도 유명하다.

인수위원들에게 휴대전화란?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대의 휴대전화를 들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추대론 두갈래 민주당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

민주통합당이 9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초선의원과 미니 의총, 재선의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옛따라 만나며 당 수습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막바지 조율에 나섰지만 비대위원장 합의 추대라는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류 세력으로 분류되는 '386'의원들과 일부 초·재선의원들은 박영선 의원 추대론을 내놨다. 이들은 박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협상'을 맡았으나 안 전 후보를 일방적 사퇴로 몰고 간 것이 아닌 만큼 정치적 과오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주류 측 한 의원은 "선대위 핵심 인사들이 임명직 포기 선언을 한 것 등 선거 전략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박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초선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선출은 합의 추대가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경선도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투표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유리기자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공단 자금 지원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벌인다.

공단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 제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소요 비용의 50%(10인 미만 영세사업장 70%)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 현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사업장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액정화면에 기자이름 뜨면 꺼버리는 것 "기자에게 전화 올라" 비서에게 맡기는 것

박 당선인 업무 함구령에 인수위원 - 기자들 때아닌 숨바꼭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업무 보안을 강조하며 함구령을 내려 인수위원과 기자들 사이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출범 사흘째인 8일 인수위가 꾸려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는 매일 아침 언론 개별 접촉 금지령을 받은 인수위원들과 기자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경쟁이 벌어진다.

기자들은 거의 유일하게 인수위원들을 만날 수 있는 출근길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지만 인수위원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사무실로 달려 들어가기 일쑤다. 점심시간에는 사무실 입구와 식당 앞에 진을 친 기자들로 붐빈다.

기자들은 인수위원들에게 명함 한 장이라도 건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쉽지 않다. 한 인수위원은 사무실로 들어가다가 문틈으로 쏟아지는 기자들 명함 한 뭉더기를 건네받고는 "누가 누군지 기억도 다 못한다"며 난처해했다.

인수위원들의 휴대전화는 비서가 받거나 자동응답 메시지가 대신 받는다. 일부는 기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고 전화를 가려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에게 온 전화에 대해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회신하곤 한다.

교수·전문가 등 취재 공세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진 위주의 인수위원들은 종종 기자들을 피하다 실수를 하기도 한다.

전날 한 인수위원은 기자들을 피해 사무실로 뛰어가다가 구두 한 짝이 벗겨지기도 했고 한 인수위원은 급하게 차에 올라탔으나 한동안 헛바퀴만 돌렸다. 그는 한 기자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풀었다"고 알려준 뒤에야 차를 몰고 떠났다.

반면 정치 경험이 있는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와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농담을 나누는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박 당선인의 함구령을 군건히 지켰다.

/김용고기자 grace1(?)@metroseoul.co.kr

'할 말 없는데…' 난감한 인수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인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눈높이 맞춰 준비하라"

11일부터 정부 업무보고 지속·폐기사업 평가 주문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업무보고를 할 각 부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11일부터 17일까지 경제와 비경제 분과위로 나눠 주말없이 일주일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국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부처별로 추진한 중점 사업 중 국민 입장에서 평가해 보완·지속·폐기 의견을 내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해당 부처는 국민적 판단에 근거한 냉엄한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11일 첫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며 인수위는 하루에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김을리기자

김지하 조순형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놓고 엇갈린 평가

시끄러운 사람 잘 앉혀

김지하 시인은 시회 논란을 빚고 있는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인선에 대해 "그 시끄러운 대변인으로 앉힌 게 잘한 것"이라고 후하게 평가했다.

김 시인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변인단에서) 막말 수준이 나와야지 박근혜가 막말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시인은 이어 "(윤 대변인 인선은) 인수위나 재정 정책이라든지 기타 청년특위에는 반대로 점잖은 사람을 들여앉힐 것이라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변인이 문 전 후보를 지지한 국민을 '국가전복세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산화 세력을 좇아가니까 공산화 세력이 된 거지"라고 언급했다.

윤창중

기본적 자세가 안 됐다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인사 논란에 대해 "대변인으로서 기본적 자세가 안 된 것 같다"며 박한 평가를 내놨다.

조 전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대변인이 지난 6일 인수위 워크숍 후 기자들 질문에 '내용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워크숍에서 의견이 서로 교환이 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면 성실껏 브리핑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보도하는지는 언론에 맡겨야 한다"며 "대변인이 기사 가치를 판단한다며 독선을 부리는데 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유리기자

복지용 증세 X 중기 살리기 O

박 당선인 사실상 확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틀을 갖추는 모양새다.

앞으로 늘어날 복지 재원을 충원하기 위해 직접 증세는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며 대기업의 악덕 횡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폭을 확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8일 한 인수위원은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정부 예산은 복지 쪽으로 돌릴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복지 컨트롤타워'를 세워 복지 지출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한 실무진은 "박 당선인이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자는 것도 언젠가 증세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증세가 아예 없을 수 있고 증세를 하더라도 집권 초기는 아닐 것"이라며 "어쨌든 인수위에서 증세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이 강조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증징계안도 마련된다.

인수위는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 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을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형덕
광고국장·직대	윤현철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9-25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24일 등록 2002.5.28 등록번호 서울 가00177

ISS 로봇우주인 인간형 로봇인 '로보넛2'가 우주정거장(ISS)의 실험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미항공우주국(NASA)이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지난 2월 촬영된 이 사진은 로봇이 우주에서 사람 대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최초로 담았다. '로보넛'은 로봇(robot)과 우주인(astronaut)의 합성어로 '로봇 우주인'이라는 뜻이다. /NASA 제공

"우리은하에 지구 크기만한 행성 170억개"

지구와 닮은 '슈퍼지구'가 조만간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외계인의 존재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MSNBC와 사이언스 데일리는 최신 연구를 인용해 우리 은하에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들이 최소한 170억 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7일 보도했다.

미국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 과학자들이 행성 추적 망원경 케플러의 자료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은하의 별 1000억 개 가운데 17%가 지구만 한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슈퍼지구급 행성들은 매우 흔해 어디서나 발견되고 있다"며 "케플러 망원경은 장치 생명체 서식이 가능할 만큼 더 먼 궤도에서도 지구 크기의 행성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한국인 생활만족도 꼴찌

日신문 아시아 6개국 조사결과 60.7%로 6위… 이유는 '경제적 곤궁 때문'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먹고살기 힘들어요."

한국인의 생활 만족도가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인도 등 6개국의 직장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활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물은 결과, 평균 76.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1위는 만족도 91.7% 인도

국가별로는 인도인의 생활 만족도가 91.7%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60.7%로 가장 낮았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베트남, 태국은 80% 안팎이었다.

인도인은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복수 응답)로 75.8%가 '원만한 가족 관계'를 꼽았고, 그 다음이 '경제적 안정'(60.7%)이었다.

최근 몇 년 새 인도에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연 10% 이상의 임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생활의 질 향상을 실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민은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곤궁'(8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국민이 경제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다. 하지만 전셋값은 5%, 도시가스는 7.7% 등 서민 생활과 관련된 품목의 상승률은 상당히 높았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오바마 "든든합니다" 척 헤이글(왼쪽) 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가운데)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존 브레넌 대 테러 수석보좌관의 발언 내용을 듣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브레넌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헤이글을 국방장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국무장관 후보자 존 케리와 함께 새 외교안보 3인방을 갖추게 됐다. /AFP 연합뉴스

美 1조달러 백금주화 논쟁

채무한도 문제해결 묘수 백악관에 주조청원 봇물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1조 달러(약 1064조원)짜리 백금 동전 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한 4000여 명이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백금 동전을 찍어내자는 청원에 동참했다.

1조 달러짜리 백금 동전을 발행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하면 재무부가 채무 한도를 피해 인플레이션 등 비뜻한 경제적 부작용 없이 충분한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음달 중순까지 미 연방정부가 채무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지난 2011년 여름처럼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빠지게 된다.

크루그먼은 "공화당이 미국을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1조 달러짜리 백금 동전을 찍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조 달러 동전 주조는 미 화폐 금융법의 허점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다. 화폐금융법에는 지폐와 금, 은 동화에 대한 발행 한도가 명시돼 있으나 백금 동전에는 복별한 한도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까지 이 청원서의 서명자가 2만5000명이 넘으면 백악관은 이 청원에 정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국명기자 kmlee@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美대법 "법 위반 아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줄기세포 연구가 인간배아를 훼손하거나 파괴하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두 명의 과학자가 제기한 상고 시건을 각하했다. 줄기세포 연구가 파킨슨병 등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믿는 연구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AAMC는 성명에서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엄격한 윤리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법적인 장벽이 모두 없어졌으니 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선미기자

Nikkei (일본) 10508.06 (-90.95)
Hang Seng (홍콩) 23111.19 (-218.56)
Shanghai (중국) 2276.07 (-9.29)
Dow Jones (미국) 13384.29 (-50.92)

EXCHANGE RATE	
달러	1063.20
엔(100)	1216.20
유로	1394.17
위안	170.77

차시장 흔든 '기름 한방울의 힘'

국내 자동차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중소형 위주의 수입차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국산차와 직접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토종 브랜드의 경우 연비가 조금이라도 뛰어난 모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한 가운데 2000cc 미만 비중이 2011년(42.2%)보다 7%포인트 이상 늘어난 49.4%로 수입차 시장의 소형화 추세를 드러냈다. 2000~3000cc는 33.4%, 3000~4000cc는 14.1%, 4000cc 이상은 3.1%였다.

이미 같은 날 GM 캐딜락은 준중형 세단 'ATS'를 출시했고 BMW '3 시리즈 GT', 폭스바겐의 '폴로', '골프', BMW 미니의 '페이스맨', 시트로엥의 'DS5', 볼보의 'V40', 혼다 '시빅', 닛산 '쥬크', 토요타 '라브4' 등의 중소형 인기 모델이 속속 상륙한다.

지난해 소비자 선택 분석해 보니

수입차 중 중소형·디젤차 비중 급증
국산차 SM시리즈 인기 이유도 '연비'

디젤차 비중도 부쩍 높아졌다. 수입차 시장에서 2011년만 해도 35%였던 디젤차 비중은 지난해 50.9%로 절반을 넘었고 가솔린차는 44.2%, 하이브리드차는 4.8%였다.

국산차 간 경쟁에서도 '연비'가 구매 시 1순위로 부각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의무로 반영하는 신연비를 살펴보면 르노삼성의 '뉴 SM5 플래티넘'과 '뉴 SM3'가 국내 완성차 동급 모델 가운데 최고 연비를 달성했다. 두 모델은 각각 12.6, 15.0㎞/ℓ(CVT 자동변속기 기준)의 연비를 기록했다.

뛰어난 연비를 미리 알아본 고객들은 르노삼성에 지난해 내수시장 차체 최고 실적이라는 선물을 줬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12월 내수 6405대, 수출 7504대를 판매해 전월대비 11.8% 늘어난 1만3909대를 판매했고 SM5의 경우 대수에서 3902대를 판매해 2012년 들어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앱으로 가전 컨트롤 한 번에! LG전자 모델들이 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2013 CES'에 참석, 스마트폰으로 가전의 상태 확인 및 제어가 가능한 LG전자 최초의 가전 통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컨트롤'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자 제공

"세계 사이버 공격 올해 급증할 것"

강대국의 핵 미사일이 저절로 발사된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갑자기 멈추고 예고 없이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

CNN은 7일(현지시간) 컴퓨터 보안업체 맥아피 연구팀이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사이버 공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사이버보안 전문가 제임스 루이스도 군사대국 15곳 가운데 12곳이 현재 사이버 전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사이버 냉전은 사실 현재 진행형이지만 내년에는 좀 더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이란은 자국 정부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은행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회사 아람코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한 바 있다. 지난해 미 의회에서는 증권거래소와 원자력발전소 등이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박성훈기자

"금융·외환 감시 강화" 정부 4년만에 개입나서

정부가 미국 부채 한도 협의, 유럽 경제 회복 지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금융·외환시장에 공개적인 구두 개입에 나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009년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금융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김지성기자

열혈강호 후속작 내일 첫선

동명의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한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의 후속작이 10일 공개서비스를 시작한다.

엠게임은 8일 '열혈강호2' 서비스 일정과 콘텐츠를 공개했다. 전작은 다소 코믹한 느낌의 게임이었지만 신작은 현실적인 캐릭터와 강력한 무공을 강조했다.

권이형 엠게임 대표는 "열혈강호2는 한국은 물론 개발 초기단계부터 해외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국가별 특성에 맞는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꾸준히 해외 진출 전략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성훈기자

농·신·수협 아직 금융위기 늪

유동성 리스크 지표 LMI 2008년 당시 수준 그대로

NH농협·신협·수협은행의 유동성 리스크가 금융위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현갑 김자혜 한국은행 금융규제팀 과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동성 불일치 지표(LMI)를 활용한 국내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LMI란 은행의 부채유동성 지수와 자산유동성 지수의 차이를 뜻한다. LMI가 커질수록 은행이 빌린 부채는 빨리 갚아야 하는데 막상 은행이 다른 곳에 빌려준 자산은 빨리 회수를 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진다.

신 과장은 국내 은행의 LMI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금융위기 당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NH농협은행 등의 LMI는 금융위기 당시의 높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신 과장은 "특수은행들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은행채와 기업예금을 크게 늘린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특수은행의 경우 정부가 결손을 보전해주고 정부 보증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농협은행 등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완벽남' 헤니처럼 완벽서비스

현대증권 새 CF '어너러블'

현대증권은 1월 새롭게 '어너러블(Honorable)' 편 TV 광고를 온에어한다.

고객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는 것이 현대증권이 지향하는 금융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던 '빌리브' 편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증권의 도전, 혁신,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여라는 핵심 과제의 근본에 고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즉, 현대증권이 지향하는 고객관리 서비스는 돈의 내일이 아닌 고객의 내일을 위한 것이며, 그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비슷한 서비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품질 관리 및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다채롭고 완벽한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광고는 메시지는 물론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전편의 임팩트를 능가한다는 평이다.

고객과 현대증권의 관계를 연형과 다니엘 헤니의 관계로 설정한 상황에서 고객 라이프 전반에 대한 가능성을 위해 현대증권의 기본인 고객 지향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고객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박상훈기자

www.boryung.co.kr
BORYUNG
보령제약
엑스솔루션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숙취에 강하다!
한판불자!!
엑스솔루션
음주전후 숙취해소
약국에 있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7가지 식물성분의 비밀공식, 엑스솔루션!
■ 자연에서 찾은 7가지 식물성분
■ 황금비율 배합기술 개발
헛개
갈근
강황
녹차잎
인진쑥

75세까지 가입되는 무심사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보험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보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61~75세 고령자들의 가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령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전화(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현기자

'통신 십일조' 떼이는 당신

3년 차 직장인 나계화씨는 새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자'는 다짐 하고 지난해 지출항목을 살펴보던 중 깜짝 놀랐다. 매달 통신비로만 16만원을 쓴 것이다.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3'를 새로 사면서 ▲단말기 할부금 포함 월 10만원 ▲KT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이 3만원 ▲통신사 3G망을 이용하는 뉴 아이패드가 3만원가량이었다. 나씨는 "월급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거의 10%가 통신비로 사라지는 셈이다. 현대판 십일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스마트폰·태블릿·집 인터넷에 가구당 매달 평균 15만원 지출

듀얼스피커 달린 LTE폰 팬택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AT&T를 통해 LTE 스마트폰 디스커버(Discover, 모델명 P9090)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디스커버는 상단부 좌우에 듀얼스피커를 장착해 생생한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다. 1200만 화소 카메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듀얼 코어 프로세서 MSM8960을 탑재했다. /김학선기자 lazyhand@

통신 강국 대한민국에서 첨단 통신 환경을 누리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공감대가 재차 형성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은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5만5000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7.7%로 주요 소비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제조사의 과열 경쟁을 자제하더라도 새것이나 다름없는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소비자 욕구는 상상을 초월한다.

리서치 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3일~10월 10일 최근 6개월간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 2만758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6%는 할부금이나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39%가 '최신 휴대전화를 갖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마케팅+최신폰 소비욕 맞물려 정작 약정용량 3분의 1은 못써

전 세계에서 LTE를 사용하는 3명 중 1명이 우리나라 가입자일 정도다. 지난해 말 국내 LTE 가입자 수는 1589만 명으로 2011년의 13.4배로 증가했다. 이동사는 객단가가 높은 LTE를 밀고, 제조사 역시 LTE를 기반으로 한 새 단말기를 내놓아 수요를 늘리는 방식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낸 돈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비싼 요금제 상품에 가입하지만 실제 사용량은 내는 요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박성훈기자 zenith@metroseoul.co.kr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북 단양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 그리고 생태체험이 있는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탐방열차는 서울역(청량리역) – 강원도 영월 – 정선 – 태백 – 정동진 – 경북 봉화 – 영주 풍기 – 충북 단양 등을
거치는 코스로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하얗게 수놓은 백두대간의 눈꽃 장관은 겨울 여행만의 운치와 낭만을 가슴가득 담아드릴 것입니다.

강원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곳!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된 강원도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십시오.

태백산 및 석탄박물관 → 365세이프타운 → 정선5일장 → 산들 → 정동 → 청령포 → 선암마을 → 정동진 해돋이

경상북도

전통의 향기가 살아있는 곳!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경상북도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부석사 → 소수서원과 선비촌 → 풍기인삼시장 → 봉화승부역 → 청량산도립공원과 청량사

충청북도 단양군

꼭 한번은 가보고 싶은 곳! 휴양관광도시 충청북도 단양으로 떠나보세요.

온달관광지 → 다누리 아쿠아리움 → 도담삼봉 → 장회나루 → 단양고수동굴 → 소백산

12월 여행

22일, 23일(당일)
- 태백편(대인 43,000원 / 소인 46,200원)
- 정선편(대인 65,000원 / 소인 55,000원)
- 태백 & 영월편(대인 59,000원 / 소인 57,000원)

25일(당일)
- 영주 1편(대인 48,000원 / 소인 47,000원)
- 영주 2편(대인 59,000원 / 소인 57,000원)
- 단양편(대인 59,000원 / 소인 57,000원)

28일(무박 2일)
- 영주편(나인 69,000원 / 소인 67,000원)
- 봉화편(대인 65,000원 / 소인 68,000원)

29일(무박 2일)
- 단양편(대인 69,000원 / 소인 67,000원)

1월 여행

12일(당일)
- 단양편(대인 45,000원 / 소인 42,000원)
- 영주편(대인 49,000원 / 소인 45,000원)

12일(무박 2일)
- 영주편(대인 59,000원 / 소인 56,000원)

19일(당일)
- 단양편(대인 45,000원 / 소인 42,000원)
- 영주편(대인 49,000원 / 소인 45,000원)

19일(무박 2일)
- 단양편(대인 54,000원 / 소인 52,000원)

26일(당일)
- 정선편(대인 65,000원 / 소인 55,000원)
- 태백편(대인 54,000원 / 소인 50,000원)

27일(당일)
- 정선편(대인 65,000원 / 소인 55,000원)
- 태백편(대인 54,000원 / 소인 50,000원)

25일(당일)
- 단양편(대인 45,000원 / 소인 42,000원)
- 영주편(대인 45,000원 / 소인 45,000원)

※ 상기 일정 및 요금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비 포함내역 : 왕복열차비, 연계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
※ 신청 및 문의 : 코레일관광개발 02)2084 - 7786 www.korailtravel.com / 경상북도관광공사 054)740 - 7332 www.gtc.co.kr

섹시한 뱀·귀여운 뱀의 유혹

100자 브리핑

아모레퍼시픽이 여성가장의 창업을 돕는 '희망가게' 사업 지원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사업자에겐 최대 4000만원을 연리 2%,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25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은 누구나 신청 가능.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최근 베이징에 중국 5호점을 열었다. 베이징점은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유명 대학이 있는 중관촌 소재 EC몰에 자리를 잡았다. 이니스프리는 올해 중국 12개 도시에서 50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유통업계, 뱀 마케팅… '비호감 허물' 벗기다

뱀피 패션 뜨고 캐릭터 상품으로도 인기 예고

귀엽거나 섹시하거나. 새해 초 뱀의 변신이 놀랍다. 무섭고 징그러운 허물을 벗은 듯 친근하게 다가왔다.

해마다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로 마케팅을 펼쳐온 유통업자들이 계사년 뱀의 해를 맞이 뱀을 다채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뱀은 12간지 중 호감도가 가장 떨어져 고민이 많았다"며 "뱀이 원래 풍요, 지혜, 불사를 상징하는 만큼 불황 속에 부자 되라, 건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뱀 인형들은 귀여움을 앞세웠다. 특급호텔인 하얏트리젠시제주가 최근 '올해의 인형'으로 내놓은 제품은 아기자기한 하늘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디자인. 어린이 선물용으로 제작한 만큼 네 번이나 수정한 끝에 귀여운 모양의 뱀 인형을 탄생시켰다. 롯데마트가 이달 초 판매한 인형도 파스텔톤으로 깜찍함을 살렸다.

다이소에서는 방실방실 웃고 있는 디자인의 뱀 모양 저금통을 내놨다. 뱀이 풍요의 상징인 만큼 새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섹시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수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뱀피 패션은 올해 물을 만난 격이다. 뱀피 모양 장식이 거부감 없이 가방과 신발, 속옷에까지 응용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강렬한 뱀피 무늬를 두른 운동화 '뉴발란스 574 스네이크팩'을 출시했다. 이탈리아 브랜드 브루노말리에서도 인기 가방에 뱀피 주머니 장식을 더한 쿠보 포켓을 내놨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선 최근 뱀피가 돋보이는 클러치와 구두 등을 한정 판매했고, 이마트는 10일까지 '뱀피 무늬 속옷전'을 연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모바일 네이버에 '연예인 룩' 가득

네이버 지식쇼핑이 연예인이나 모델들이 착용한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모바일 코너 '리얼 스타일'을 새로 선보였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바일 잡지에 쇼핑의 기능을 더한 패션 특화 서비스다.

유명 모델들의 일상 패션을 소개하는 '모델 데일리룩', TV 속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는 '패션 on TV', 연예인들이 고른 아이템을 소개하는 '패션 아이콘 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네이버 지식쇼핑 '체크아웃', 샵N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일반 PC에서처럼 쉽고 편하게 내용을 보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에 최적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축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전효순기자

롯데몰 김포공항점 '영스트리트존' 오픈 8일 롯데몰 김포공항이 일부 매장을 새단장해 꾸민 400평 규모(1305㎡)의 영스트리트존을 선보였다. 기존 식품관을 10~20대를 위한 영패션브랜드존으로 개편한 것으로 엠샵·스타일러컷·누디진, 라빠레뜨, 모비토 등의 브랜드가 입점했다.

티쏘, 새해선물용 시계 제안

시계브랜드 티쏘(TISSOT)가 새해선물로 '트래디션 크로노그래프'를 추천했다.

블랙·브라운 가죽과 메탈 등 다양한 스트랩으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죽 스트랩은 세련된 실버 컬러의 원형 프레임과 어울려 클래식한 느낌이 물씬 풍긴다. 특히 다이얼 인덱스의 정교한 장식이 멋스럽다. 캘린더 기능까지 추가해 실용적이다. 메탈 스트랩은 겨울철 어두운 패션에 포인트로 제격이다.

한우몰 강강술래서 공연티켓 득템

홈피 고객마당 글 남기면 '백조의 호수' 등 2색 행운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겨울방학 기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선물을 증정하는 문화 이벤트를 벌인다.

홈페이지(www.sulla.com)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터디베어씨어터의 인형발레 공연 '백조의 호수'(20일 마감)와 미술 장르에 특수효과를 덧입힌 드로잉 퍼포먼스 '오리지널 드로잉쇼'(31일 마감) 티켓을 증정한다.

또한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 매장에서 설 명절 선물세트를 최대

64% 할인 판매하고 있다. 13일까지 주문 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 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 2만2000원, 쇠고기 육포 세트(6봉)는 2만5200원 등 모두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인기 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8kg 5만원)와 한우왕념1호(8대·15만원) 등 한우부선세트는 최대 64% 할인 판매하며, 술래왕념1호(16대)도 8만원(40% 할인)이 선보인다.

대표 메뉴끼리 결합한 술래실속(술래)(6대+한우불고기 1.8kg)은 13만원, 한우실속(한우 8대+한우불고기 1.8kg)은 20만원에 판다. 1+등급 이상의 한우를 사용한 한우찜갈비세트(2.4kg 17만원)와 한우명품세트2호(안심·등심·채끝 2.4kg 22만원)도 파격가로 내놨다.

뱀띠해 예비맘에 뷔페 무료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이 새해를 맞이 '엄마의 기다림 2013년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벤트를 진행한다.

뱀띠 해 출산 예정인 예비 맘을 포함해 3명 이상 뷔페를 이용할 경우 임산부는 공짜다. 또 출산 예정자가 2명 이상 방문하는 경우 각각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임산부와 태어날 아기가 모두 뱀띠인 경우 보디케어 제품 샘플세트를 무료로 증정한다. 산모수첩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문의 02)6016-0080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만남나이트' 첫 게스트 출연

이서진이 KBS2 '달샤어 좋다–만남 나이트'(가제)의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8일 제작진에 따르면 이서진은 이달 중순 녹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박2일 – 설천 특집'에 출연 이후 1년 만의 예능 나들이다. 강호동의 복귀작 중 유일한 신설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은 '만남 나이트'는 최강창민·용감한 형제·정재형·탁재훈을 고정 패널로 22일 첫 방송된다.

킨텍스 솔로 콘서트 매진

JYJ **김재중**이 26~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첫 솔로 콘서트 티켓을 모두 매진시켰다.

소속사에 따르면 7일 오후 8시 예매 시작과 동시에 1만6000장이 모두 팔렸고, 접속자가 폭주해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티켓 서비가 30분 이상 다운됐다. 또 해외 IP 접속자도 인터파크티켓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정우성과 '한지붕' 쓴다

최진혁이 정우성과 한솥밥을 먹는다.

정우성이 10년지기 매니저와 함께 설립한 매니지먼트사 레드브릭하우스는 8일 전속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그의 재능과 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진혁은 '내 딸 꽃님이'에서 공연한 배우 손은서와 공개 연애를 해오다 최근 결별했다.

타진요 유죄 – 법정싸움 끝

타블로가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와의 법정 싸움을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 3부는 타진요 회원 중 최후까지 상고 의사를 굽히지 않았던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타블로는 자신의 미 스탠포드 대학원 석사 과정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악성 댓글을 단 '타진요' 회원 12명을 고소했다.

탄탄한 팀워크 비결은 메신저 폭풍수다 ㅋㅋ

'아이 갓 어 보이' 들고 파격적 컴백

소녀시대

걸그룹 소녀시대가 파격적인 변신으로 새해 시작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다. 댄스곡 '아이 갓 어 보이'를 앞세운 4집으로 1년2개월 만인 1일 컴백한 이들은 벌써부터 각종 논란과 기록을 양산하며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중이다. 7일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기다에 몰려있는 멤버들을 만나 유쾌한 수다를 나눴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새 콘셉트과 변신의 모든 것

리더 태연이 먼저 "오랜만의 컴백이라 팬들이 기대를 많이 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새해 첫날 컴백이라 더 의미 있고, 뱀띠 써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소감으로 입을 열었다.

기존 여성스런 섹시미로 걸파워를 보여줬던 소녀시대는 이번에 획기적인 변신을 시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음악 차트를 장악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타이틀곡이 난해하게 느껴지고 멤버들의 모습이 낯설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타이틀곡은 랩·레트로·어반 장르를 섞은 일렉트로닉 댄스곡으로, 국내에선 흔히 듣기 어려웠던 장르다. 곡의 콘셉트에 맞춰 멤버들은 의상과 머리 스타일을 펑키하게 바꾸고, 데뷔 후 처음으로 무대에서 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과격한 댄스를 춘다.

"사실 우리도 처음 곡을 들었을 때 난해하게 느꼈어요. 그러나 반복해 듣고 노래하니 소녀시대만의 느낌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가사도 소녀들이 수다 떠는 내용이라 공감됐죠. 즐기면서 하고 있으니 팬들도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태연)

제시카는 "이전보다 성숙해진 것 같다"고 만족해했고, 티파니·윤아·유리는 "힐을 벗으니 연습 때처럼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반응과 올해 활동계획

해외에서 더 화제다. 빌보드 등 외신들로부터 진보적인 팝이라는 격찬을 받았고, 뮤직비디오는 공개 5일 만에 유튜브 2000만 뷰를 돌파해

> 처음에 곡 들었을 땐 난해
> '소시'표 느낌으로 살려내
> ⋮
> 힐 벗어던진 채 과격댄스
> 자신감이 더욱 생겼어요

'유튜브의 여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2000만 뷰까진 한 달여가 걸렸다.

태연은 "이번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지 만큼은 싫지 않았다"고 농담하며 "해외에서 반응이 올 거라는 예상을 했다"고 뿌듯해했다. 서현은 "최근 K–팝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고 놀라워했다.

싸이를 잇는 차세대 국제스타로 주목받는 걸그룹답게 포부도 남다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해외에서 주목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강남스타일'로 많은 나라를 갔던 싸이 선배처럼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티파니)

일단은 일본부터다. 이달은 국내에서 앨범 활동을 하고 다음달부터 4월 말까지 일본 22개 도시를 도는 아레나 투어를 펼친다.

#그녀들의 생활과 목표

지난 1년간 태연·티파니·서현이 뭉친 유닛 '그룹 태티서' 활동과 윤아·수영·제시카·유리의 드라마 출연으로 개별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팀워크는 더 단단해진 듯 보였다.

어느덧 데뷔 7년 차 걸그룹이 된 이들이 팀워크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이번 타이틀곡의 주제처럼 여자들의 수다다. 주로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는데 한 번 놓치면 몇 백 개의 대화가 쌓여있을 정도란다.

효연은 "쓸데 있는 수다든 없는 수다든 많은 대화를 하면 서로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했고, 수영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멤버가 있으면 다가가서 챙겨준다. 한시도 소외된 멤버가 없는 게 우리 팀 강점"이라고 밝혔다.

자매처럼 지내온 이들은 영국의 오래된 걸그룹 스파이스걸스처럼 각자 행복을 찾고 성장하면서도 언제까지나 소녀시대란 이름으로 함께 하고 싶다고 공통된 바람을 털어놨다.

최근 원더걸스 선예가 결혼을 발표해 놀라움을 준 가운데, 멤버 중 누군가 결혼을 한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효연은 "누구든 가족 다음으로 멤버들에게 가장 먼저 오케이 받아야 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현재의 목표는 물론 음악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 나이대에 맞는 음악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기에 어리고 예쁜 후배들이 등장해도 질투하기보다 스스로가 자랑스럽죠. 내년엔 또 어떤 새로운 음악을 할지 기대가 된답니다."(수영)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양성혜

1일 4집 '아이 갓 어 보이'로 1년2개월 만에 컴백한 소녀시대 멤버들. 왼쪽부터 써니·태연·티파니·유리·윤아·제시카·서현·수영·효연

Who is 잭 리처?

멈추는 법도, 뒤돌아보는 법도 없다!
그저 앞만 보고 간다!

지문도, 흔적도, 신분도 남기지 않는다!
무기는 필요 없다! 여유를 잃지 않는 리얼 액션의 진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소유하지 않을 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순간, 오직 그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그가 바로 '잭 리처'다!

톰 크루즈

잭 리처
JACK REACHER

1월 17일 대개봉

카라 日 골든디스크 3관왕

카라가 도쿄돔 입성에 이어 골드디스크 3관왕으로 일본에서 쾌영의 인기를 이어갔다.

이들은 7일 발표된 '제27회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를 2년 연속 수상했다. 또 지난해 발표한 2집 '슈퍼걸'로 '올해의 앨범(아시아 부문)'과 '베스트3 앨범(아시아 부문)'까지 받았다.

소녀시대는 '파파라치'로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아시아 부문)'와 첫 일본 투어를 수록한 '재팬 투어 걸스 제너레이션'으로 '베스트 뮤직비디오(아시아 부문)' 등 2개 부문을 수상하며 이름을 올렸다.

'베스트3 앨범(아시아 부문)'에는 카라와 함께 빅뱅의 '얼라이브', 장근석의 '저스트 크레이지'가 뽑혔다. '베스트 3 뉴아티스트(아시아 부문)'에는 '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아시아 부문)를 수상한 B1A4와 아이유 보이프렌드가 뽑혔다.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은 일본 내에서 팔린 음반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일본 내에 K-팝 열기가 거세자 지난해부터 한국 가수만을 위한 시상인 '아시아 부문'을 신설했다. /유순호기자 suno@

슈주-M 中 기자회견 '후끈' 팬 운집에 공안 출동하기도

정규 2집으로 컴백한 슈퍼주니어-M이 중화권 최강 아이돌의 위상을 확인했다.

7일 중국 베이징 CGV 국제 영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MTV·호남위성TV·동남위성TV·시나·소후 왕이·인위에타이 등 현지 주요 매체들이 대거 참여해 취재 경쟁을 벌였다. 기자회견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운집해 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 공안이 출동하기도 했다.

멤버들은 유창한 중국어로 타이틀곡 '브레이크 다운'의 이야기, 뮤직비디오 촬영 에피소드 등을 들려줬다. /유순호기자

<환희·준희>

덤덤했던 남매 끝내 울다

고 조성민 장례식 치러져…"하늘가서 못다한 야구하길"

고 최진실의 전 남편이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조성민(40)의 장례식이 8일 침통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정민철(한화) 코치, 홍원기(넥센) 코치 등 고인의 92학번 동창생, 허구연 MBC 해설위원 등이 참석해 고인의 죽음을 슬퍼했다.

조성민의 전 에이전트인 손덕기 씨가 위패를 들고 고인의 사촌동생이 영정 사진을 들고 운구 행렬을 이끈 가운데 고인의 어머니는 "성민이"를 외치며 오열했고, 휠체어에 앉아 있던 아버지 역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친구인 홍 코치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운구 행렬을 뒤따르던 고인의 자녀인 환희·준희 남매는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여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 어머니와 외삼촌 최진영에 이어 아버지까지 잃은 남매의 이 같은 모습을 친척들이 보면서 더 통곡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전직 야구선수 고 조성민의 발인이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고인의 유해는 성남 납골당에서 화장됐고, 오후 1시께 장지인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으로 옮겨져 납골당에 안치됐다. 오빠 환희와 함께 상주로서 빈소에서 차분하게 조문객을 맞았던 준희는 안장식이 진행되자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고인은 6일 오전 3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욕실에서 목을 맨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균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이상윤·남상미 지난해 12월 초 결별

이상윤·남상미 커플이 지난해 12월 초 결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1년6개월 공개 열애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상윤의 소속사는 8일 결별 사실이 보도되자 "헤어진 것은 맞지만, 사생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대답을 아꼈다.

2010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커플 연기를 하며 인연을 쌓은 이들은 연예계 대표 '엄친아'와 '얼짱' 스타 커플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해 10월에는 남상미 주인 영화 '복숭아나무'의 VIP 시사회에 참석한 이상윤이 공개적으로 꽃다발을 건네는 등 애정을 과시했다.

결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공개 석상에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2012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한 이상윤은 시상자인 홍은희가 "그분(남상미)에게도 자상한가?"라고 돌발 질문하자 "많이 주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전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한편 이상윤은 현재 KBS2 '내 딸 서영이'로 시청률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상미는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장보영기자 kwon@

브루스 윌리스(왼쪽)와 제이 코트니.

스케일 더 커진 '다이하드5'

주연 브루스 윌리스 모스크바까지 무대 확장

민머리 노장 액션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자리를 옮겨 또 한 번 곡도록 고생한다. 다음달 7일 개봉될 '다이하드: 굿 데이 투 다이'에서다.

10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작품은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시리즈의 다섯 번째 이야기다. 윌리스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존 매클레인 형사가 전 세계를 핵 공포로 몰아넣는 러시아 테러리스트들과 일당백의 혈전을 벌인다.

새로운 캐릭터도 가세했다. 4편의 딸 루시에 이어 아들 잭(제이 코트니)이 존을 돕는다. '아날로그 인간병기'의 DNA를 주고받은 아버지와 아들의 물량 액션 활극에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국내 수입과 배급을 맡은 20세기 폭스 코리아는 "1편의 고층 빌딩과 2편의 공항, 3편의 뉴욕과 4편의 미국 전역에서 5편은 헝가리·뉴욕·캐나다·러시아로 스케일이 커지면서 볼거리가 월씬 늘어났다"며 흥행 성공을 자신했다.

/조성준기자 when@

뮤지컬 '카르멘' 이끌 배우를 찾습니다

국내 초연을 앞둔 뮤지컬 '카르멘'이 28일부터 배우 오디션을 실시한다.

카르멘의 뇌쇄적 매력을 표현할 주연배우는 물론 개성을 갖춘 조연, 마술·서커스·아크로바틱으로 무대 미학을 더할 앙상블 등 전 배역을 선발한다. 참가 희망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카르멘 홈페이지(www.musicalcarmen.co.kr)로 접수하면 된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투란도' '몬테크리스토' 등 수많은 히트작을 만들어낸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참여한 '카르멘'은 화려한 무대미술과 다양한 서커스·마술을 도입해 무브먼트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체코에서 초연 당시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했다.

국내 무대는 12월 3일부터 2014년 2월 23일까지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펼쳐진다. 문의: (02)744-4337

/김민준기자 mjkim@

"오연수, 의외로 터프하던걸"

다음달 7일 개봉 '남쪽으로 튀어' 제작보고회

김윤석이 오연수에게 따구 비드를 날렸다.

김윤석은 8일 열린 새 영화 '남쪽으로 튀어' 제작보고회에서 극 중 아내로 출연한 오연수를 향해 "(오연수가 출연한) 드라마 '달콤한 인생'을 보고 홀딱 반해 팬이 됐다. 앞으로 멜로물에서 다시 연기해보고 싶을 정도"라고 애정 가득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단아한 외모와 달리 영화 속 캐릭터처럼 터프한 일면이 있더라. 내가 만난 여성들 가운데 가장 강하다"면서 "아들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무서웠다"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자아냈다.

함께 출연한 김성균에 대해서도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촬영지에서 동네 가족을 잘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보신탕집 아들이었다"고 밝히자 몸을 예초기로 유명한 연출자 임순례 감독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김성균을)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어용의 대화에 잠시 당황한 김성균은 "부모님이 오래전 보신탕집을 운영하셨다. 지금은 누구보다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해명해 제작발표회장을 또 한 번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김윤석은 각본 작업에도 참여했다고 알려 눈길을 끌었다. 임 감독은 "김윤석이 워낙 아이디어가 풍부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며 "김윤석 본인은 영화 크레디트에 이름 올리는 것을 사양했지만 많은 부분에 참여했으므로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이 영화는 386 운동권 출신의 무정부주의자 최해갑 가족이 외딴 섬으로 이주해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다음달 7일 개봉.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영화 '남쪽으로 튀어'의 남녀 주연배우 김윤석·오연수가 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웃음으로 답하고 있다. /한용태기자

wind2686@naver.com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7 What day is today?

요일과 달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어제는 일요일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녀를 이틀 전에 봤어요.
화요일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저는 두 달 동안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 day is today?
Yesterday was Sunday, wasn't it?
I saw her two days ago
Where were you on Tuesday?
I was out of town for two months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Yesterday was Sunday, 그렇지 않았나요?
B Yes, it was.

정답 wasn't it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saw Tom two [days / weeks] ago
2 Where were you [last night / a week ago]?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문으로합니다.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명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expense	명 비용, 경비 expend 동 (시간, 노력) 들이다	cut down on travel expenses 여행 경비를 절감하다
organization	명 조직, 단체 organize 동 조직하다	a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
position	명 자리, 지위 동 ~에 두다, 배치하다	apply for the position of marketing manager 마케팅 부장직에 지원하다
profit	명 수익, 이익 동 이익을 얻다	a rise (drop) in profits 수익 증가(하락)
supervisor	명 관리자, 감독관 supervise 동 감독하다	my immediate supervisor 나의 직속 상사
tour	명 견학, 관광 동 관광하다	give a tour of ~을 안내하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6 Express an opinion

선호사항 질문 유형 파악하기

질문의 일부를 따라 읽기(Echoing)

Do you prefer to spend your free time with other people or on your own?
(A) (B)

의견 A. I prefer to spend my free time with other people.
→ 에코잉

의견 B. I prefer to spend time on my own.
→ 에코잉

정대세 "첫해 15골 넣겠다"

수원 입단 K리그 데뷔…"서울·울산과 맞붙고 싶어"

프로축구 수원 삼성에 입단하는 정대세(29)가 K리그 클래식 데뷔 시즌에 "15골을 넣겠다"고 호언했다.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정대세는 "공격수로서 한 시즌에 15골을 넣지 못한다면 경기에 뛰지 못할 것"이라며 "아직 현역 선수로서 우승해본 적이 없는데 수원에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쾰른(독일)에서 뛴 그는 지난해 11월 수원에 이적 희망서를 제출하고 새 둥지를 튼다. 정대세는 "수원은 전통 있고 열렬한 팬도 많고 선수들에게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고 들었다"며 "예전에 수원에서 뛴 적 있던 안영학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 수원에서 뛰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두리 형에게 자주 얘기 들어서 수원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강팀인 울산 현대도 경쟁자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처음으로 하는 한국 생활에 대해서는 "축구만 잘하면 좋겠다"며 "축구만 잘된다면 다른 것은 저절로 잘될 것 같다"고 소망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메디컬테스트를 받은 뒤 10일 기자회견과 함께 입단식을 치를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mdun@metroseoul.co.kr

K리그 클래식 수원 삼성에 입단하는 정대세가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첼시맨' 램퍼드 맨유 둥지트나

첼시 재계약 불가 통보에 퍼거슨 감독 영입 검토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 첼시가 베테랑 미드필더 프랭크 램퍼드(35)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램퍼드의 에이전트는 8일 "첼시가 지난해 클럽월드컵 때 램퍼드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지난달 에버턴전을 마치고 이번 시즌이 끝난 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구단의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1995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램퍼드는 2001년부터 첼시 유니폼을 입고 꾸준히 1군에서 활약한 스타 플레이어다. 첼시 올해의 선수를 3차례나 차지한 그는 첼시에서 193골을 작성, 첼시의 역대 득점 순위 2위에 올라있다.

차기 행선지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영국 언론은 이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이번 시즌 첼시와 계약이 만료되는 램퍼드의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특히 더 선은 맨유가 램퍼드의 영입 의사를 표현한 데 이어 대리인과 이미 접촉을 했다고 전했다.

퍼거슨 감독은 램퍼드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실상 팀드는 떠나는 폴 스콜스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준기자

구슬땀 흘리는 체조요정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8일 오후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다음달 열리는 모스크바 그랑프리 대회를 목표로 훈련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메시 FIFA-발롱도르 4연패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26·바르셀로나·사진)가 4년 연속 FIFA-발롱도르를 수상했다.

메시는 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12년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바르셀로나)를 제쳤다.

메시는 전신인 FIFA 올해의 선수까지 포함해 발롱도르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가 됐다. 종전 최다 수상자는 올해의 선수상을 세 시례씩 석권한 호나우두와 지네딘 지단이다.

메시는 지난해 91골을 터뜨려 게르트 뮐러가 1972년에 세운 한 해 최다골 기록을 깼다. /김민준기자

장미란 바벨 놓는다

내일 현역은퇴 기자회견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30·사진)이 선수 생활을 접는다.

장미란은 8일 "현역 생활을 지속할지를 두고 심사숙고하다가 은퇴할 결심을 굳혔다"며 "10일 고양시청에서 열리는 은퇴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2005, 2006, 2007,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제패한 장미란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우승하면서 무려 5년 동안 세계 여자역도 최중량급을 지배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출전할 수 있는 모든 국제대회를 제패한 '그랜드슬래머'다.

그러나 부상에 시달리면서 2010년부터는 신예들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따지 못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김민준기자

10th
Double A
좋은 직장 만들기 운동본부
Double A
Double A
우리 팀 회의는
시작만 했다 하면
42.195km
마라톤 회의를
신고합니다!
보너스
직장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 Double A에 신고하세요!
Double A에 신고하면,
여행상품권이 그대품에!
Call
1644-8810